

자신의 천국을 이룬 후라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.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바라는 것은 그 상대자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.

자기 혼자서도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축복을 바란다면 그는 도적이다. 탕감의 노정을 끝내는 것이 축복보다 더 중요하다. 축복을 바라기전에 탕감의 노정을 마치기를 더 간절히 원해야 되며,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 드려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.

선생님이 식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식구들도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것이다. 완전한 주체가 서게 되면 완전한 대상은 나타나는 것이다. 가정에서도 부부중의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 뜻 가운데 서야 되고, 다른 한 사람은 그를 아벨의 입장에 세우고 따라야 한다.

후세에 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사람은 편안히 지내서는 안 된다. 선생님도 그러했으니 식구들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. *

© 2013 - 2014 hdhstudy.com | [Contact Us](#)

- [RSS](#)